<특집Ⅱ: PET 시장현황>

PET CAPA는 덤핑과 POWER를 키우는가?

■ PET 산업현황 및 전망
■ PET필름 시장구조 및 분석

폴리에스터(PET)산업은 합성섬유는 물론 베이스필름, Bottle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PET Chip을 이용, 각종 섬유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섬유업체들이 탈섬유화의 일차적 단계로 PET Bottle 및 필름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들어 식 · 음료병에 PET Bottle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업체들간 신 · 증설이 활발하고, PET필름은 신 · 증설이 완료된 상황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PET Bottle은 세계적으로 Eastman Kodak 등이 회수재생기술 등의 차세대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음료수업계의 PET병 선호에 의한 맹목적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PET필름은 SKC 주도속에 제일합섬 · 코오롱이 추격을 감행, 1위자리를 고수하려는 SKC, 뒤따르고 있는 제일합섬간의 국내외시장에서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마그네틱테이프용 분야에서 SKC와 제일합섬은 계열사를 낀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치열하게 경쟁, SKC가 오디오분야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제일합섬은 비디오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포장재 분야에서 SKC · 코오롱 등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급과잉 · 가격하락의 늪에서 탈피하기 위한 선발기업들의 노력이 없는 가운데, 밀어내기식 수출 및 가격인하 정책으로는 돌파구를 모색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는 계열사 의존에서 벗어나고 공급과잉 양상속에서 선진기업에게 일정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각오하에 특수그레이드 개발 · 양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또 선진 해외시장에서도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으로 맞서야 할 것이며, 동남아지역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베이스필름 투자보다는 후가공분야의 현지투자를 서둘러 국내 중소 후가공업체에 대한 피해 없이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 수요창출에도 주력해야 하는 등 시장질서를 잡아가야할 시점이다.
세계 PET 생산능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해외시장에서 까지 집안싸움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화학저널 1992/11/15>